

2022 년월일 “예수님의 비유(14) 용서의 축복을 잃은 종”(마 18:23-35)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그 은혜에 기초하여 성도의 책임을 기억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 초점을 놓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1] 하나님 나라는 셈하는 왕과 같다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100 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가혹하게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은혜입은 자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둡니다(32-34 절).

주님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비유의 핵심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2] 용서에 대한 부담과 필요한 영성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본문 35 절, 마 6:14-15 참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녀이지만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잃는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삶처럼 전략하게 됩니다.

용서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수적 과정입니다. 여기서 용서의 전제조건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에 대한 고백과 고치겠다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준비하고 앞으로 좋은 새 관계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내와 지혜를 구하며 용서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용서의 때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태도와 훈련에 애써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 안의 무능함, 갈등, 불완전함 등을 경험하지만 나와 내적 싸움을 싸우며 영성의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시다.

[3] 용서의 사람 요셉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결국 이집트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17 살~20 대를 내적/외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식량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닥쳐 요셉 형들이 이집트에 식량을 사러 오게 됩니다. 형들은 처음에 총리인 요셉을 몰라봅니다. 결국 그의 정체를 알고 놀라는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창 45:4 후~8 전, 창 50:18 후~21 읽으세요).

요셉은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에 보내신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악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축복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의 언약이 형제들 간의 용서와 화해 속에서 새로운 민족의 성취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출애굽기).

요셉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 책무를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용서는 쌍방 간에만 성립되는 사건입니다. 나 혼자 마음 속에서 봐주는 것은 실제로 용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과 영성의 요소가 필요할까요?
2. 당신은 용서의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매우 큰 축복입니다. 이 용서의 경험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